

<양성 >

지난 몇달 동안 '가난'의 문제가 양성 시간에, 형제회의 방문에서, 형제회의 회의 중에, 그리고 토론 중에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여기, 국가 형제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Dan Horan 신부님의 훌륭한 강의 중에 '프란치스코 성인과 교황님' ; 프란치스코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분이 크리스찬 삶의 가난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가난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 **비참한, 물질적인 가난** ; 삶의 기본적인 필요의 부족함 -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 ;

영적인 가난 ; 물질적인 것이 아닌 내부의 어떤 것들에게 내어 주는 -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자기 중심, 의견들, 판단들, 편견들 등등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정당화 방법 안에서 영적 가난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 형제회의 회칙에서 말하는 **복음적 가난**입니다. 복음적 가난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 "복음적 가난은 성부께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내적인 자유를 구현하며, 재물을 더욱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한다. "(회헌 15 조 1 항) 이를 잘 깨닫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기도와 대화, 공동체적 생활 반성,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형제회의 자극이 필요하다. "(회칙 11 조, 및 회헌 제 15 조 2 항 참조)

다음 귀절에서 읽겠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며 가난의 열매는 고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까 ? 이것은 몇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관용은 그냥 가난처럼 항상 물질의 소유를 필요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영적 가난과 복음적 가난은 우리가 우리의 삶 안의 상황과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나 어떤 소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혹은 그녀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는 선택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방하도록 요청하는 가난입니다.

우리가 영적, 복음적 가난을 받아 들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으로 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관심을 보일 때, 관대해 집니다. 그들이 말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 혹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청하지 않습니까 ? 그들이 말하는 것에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거절하거나 그들을 판단합니까 ? 우리는 도전이나 어려운 토론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 경청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용은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나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 편안한 위치" 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목적을 성취하고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할을 맡기는,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억지로 동의하게 함 없이 그들과 그것을 나눔니까 ?

우리는 다른 이들과 어떤 공동 목적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자신의 안건을 포기할 의지가 있습니까 ?

아니면 우리의 의견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을 힘들게 하면서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회의 회칙을 회칙으로써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일의 전환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그 의미는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완벽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과 편견으로 부터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관대하게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서약한 것과 같은 그런 진정한 영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적 가난은 또한 물질적인 가난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 밀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돕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으로써 오직 명상에 잠기는 영성으로써만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회의 사도직에 참여합니까? 우리는 급식소나 혹은 병자 방문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 줄 수 있습니까? 자비의 해인 올해는 우리에게 우리 사회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할 충분한 격려를 제공합니다. 세상 안에서 재속 프란치스코으로써 산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만큼 가난하도록** 불림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자신이 늘 사용될 수 있도록** 불림을 받았습시다. 서약한 재속 프란치스코으로써 이 서약은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는 말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세상이 하느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으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 (세 친구들의 전설 에서)

Diane F. Menditto, OFS

지구형제회 회장

국가형제회의 양성위원회원.

참고

회칙 11 ; 성부를 신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을 관심있게 또 좋게 보셨지만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생활을 택하셨다. 이와 같이 회원은 물질적 욕구를 줄임으로써 현세의 재물로 부터 벗어나고 사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복음에 따라 자신은 하느님 자녀들을 위해 받은 재물의 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회원은 '행복 선언'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순례자나 나그네' 와 같이, 소유욕과 지배욕 및 그러한 모든 경향에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회헌 15 ;

1.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참 행복의 정신, 특히 가난의 정신을 살아야 한다. 복음적 가난은 성부께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내적인 자유를 구현하며, 재물을 더욱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한다.

2. 노동과 재물 획득으로 자기 가정을 보전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은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적 가난을 살게 된다. 이를 잘 깨닫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기도와 대화, 공동체적 생활 반성,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형제회의 자극이 필요하다.

3.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영적, 물질 재물을 회원,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회원과 나누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며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사용하고, 받은 재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따라서 회원은 재물을 인간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보다 높게 보고 인간성의 착취를 허용하는 이념이나 실천 등 각종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4. 참된 형제애의 원천인 마음의 순수성을 사랑하고 간직할 것이다.

Daniel P. Horan 신부님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교황님” ;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어떤 영성을 가르치시나? (강의 내용은 지금 당신의 컴퓨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